

초등학교 전 학년 중간·기말고사 폐지

광주교육청, 논술·토론 등 수업시간 중 개인 성장 평가

교사간 수업 방식·전문성 확보, 형평성 논란 등은 과제

광주 모든 초등학교가 올해부터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 광주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 편성 배치고사’ 전면 금지와 정규 수업시간 이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진행됐던 보충 수업 폐지에 이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필고사도 금지키로 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일제식 집필 평가(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폐지했던 중간·기말고사를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초등학교매 학생들을 일제식 지필평가로 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교육청은 지난해 3~6학년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실시 여부를 각 학교 자율에 맡겼으나 폐지에 대한 호응이 커 올해부

터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청은 수업 시간 중 평가를 실시하는 원칙을 세웠다. 평가 방법도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서술 및 논술, 구술,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보고서, 관찰, 사회적 실천 등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도 시험을 통한 학생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당장, 교사간 수업 방식·전문성의 차이로 학생 평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비롯,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신대 입학식...“풍선아 내 소원 전해주렴” 27일 오전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7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이 꿈과 소망이 담긴 ‘소원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천동 재개발 사업 제척 논란 주말 결론 3·1절 민주광장서 ‘민주의 종’ 타종

일부 소유주 “내 땅 빼달라” 요구...내달 4일 총회서 결정

광주시 광천동 재개발부지 일부 소유자들이 제기한 ‘사업계획변경 요구’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광주 최대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 사업 관련해 “내 땅은 포함하지 말아달라”며 제척을 요구한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땅에 울타리를 치고서라도 막아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4일 개최 예정인 총회 안건 중 하나는 ‘구역 내 5단지 제척 승인의 건’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부터 사업계획부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받고 이를 총회 안건에 상정했다. 안건은 조합원 총원 2365명의 과반 찬성에 의해 승인된다. 부

지 제척을 요구한 5단지 면적과 소유주는 전체 사업부지(42만6380㎡가량)의 3.83%인 1만6327㎡ 수준에 법인 포함 62명이다. 조합 측은 5단지를 부지에서 제외할 경우 건축 세대 등 재개발 사업 계획을 다시 처음부터 짜야한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5단지 주민들은 그러나 “5단지 구역은 광천 터미널 주변 개발 상권지역으로 실거래금액(1000만원선)과 조합 주관 감정평가액(200만~300만원 선)이 3~5배 차이가 난다”며 “총회에서 제척 요구가 부결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공사 즈음해서 땅에 울타리를 쳐서라도 사유재산을 지켜내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시, 시청서 기념식...전남 곳곳 만세운동 재연행사도

광주시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장,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 학생 등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유경식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유족회 총무를 비롯해 3·1운동 정신 계승 및 나라사랑 운동에 헌신해온 유공자 4명은 표창을 받는다. 이날 정오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을 타종한다. 광주시 주관으로 치러지는 타종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종교단체, 고려인 등 16명이 참여해 3·1절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 염원을 담아 33회 타종할 예정이다. 민주의 종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2005년 제작됐으며 무게는 8150관(30.5t), 높이 4.2m, 바깥지름 2.5m로, 무게의 수치는 8·15 광복절과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종 몸체에 새겨진 ‘민주의 종’ 글씨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썼다. 순천문화원 주관으로 낙안 3·1독립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치러지는 등 전남지역 곳곳에서 만세운동 재연행사도 진행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4
해질녘 18:27

달돋이 08:01
달질녘 20:13

봄기운 완연

한낮엔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요.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맑은 뒤 흐림	-1/14	보성	맑은 뒤 흐림	-4/12
목포	맑은 뒤 흐림	0/11	순천	맑은 뒤 흐림	0/13
여수	맑은 뒤 흐림	3/12	영광	맑은 뒤 흐림	-5/11
나주	맑은 뒤 흐림	-4/13	진도	맑은 뒤 흐림	1/10
완도	맑은 뒤 흐림	1/13	전주	맑은 뒤 흐림	-2/12
구례	맑은 뒤 흐림	-4/13	군산	맑은 뒤 흐림	-3/11
강진	맑은 뒤 흐림	-3/13	남원	맑은 뒤 흐림	-4/12
해남	맑은 뒤 흐림	-4/12	흑산도	맑은 뒤 흐림	4/10
장성	맑은 뒤 흐림	-4/13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앞바다(서)	북동~동	1.0~1.5	동~남동	1.0~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30 20:56	03:13 51:42
여수	04:01 18:29	10:29 22:42

◇주간 날씨

3/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1/10	3/6	-2/11	-1/13	2/13	1/11	1/10

◇생활지수

	높음
	매우높음
	감기
	관심
	체감온도

사교육 많이 할수록 명문대 진학을 높여

비용 최다 지출그룹, 최저의 두배...계층 고착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고소득층 자녀 일수록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평가 및 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사교육비 지출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뉘었을 때 가장 지출이 많은 5분위와 지출이 최소인 1분위 간 격차는 약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교육비 5분위의 평균 사교육비는 61만1000원으로 집계됐지만 1분위는 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4분위는 24만9000원, 3분위는 16만6000원, 2분위는 1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상위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다. 서울 소재 4년

제 이상 진학자 기준으로 사교육비 1분위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은 23.3%였으나 사교육비 5분위의 경우 그 진학률이 50.0%에 달했다. 카이스트·포항공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경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기준으로 명문대학 진학률을 살펴봐도 사교육비 1분위의 진학률은 11.6%였으나 5분위의 경우 26%로 약 2배 이상 높아졌다. 보고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격차로 이어져 부모 계급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계층 고착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교육이 계층이동의 기제가 아니라 기존 사회계층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 봄철 화재 원인 67%가 ‘부주의’

최근 3년간 봄철(3~5월)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98건으로 전체 화재의 30.2%에 달했다. 이 기간 16명의 인명피해와 35억95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봄철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전체 봄철 화재의 66.5%(597건)를 차지했다. 전기적 요인이 17.6%(158건), 기계적 요인이 5%(45건), 기타 10.9%(98건)를 뒤를 이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다중 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과 후 이용시설 512곳과 안심 수학여행 지원 관련 숙박시설 112곳 등 소방시설 차단 여부, 불법 증축 등을 살펴본다. /최권일기자 cki@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